

# 그들은 아직도 눈 한 번 깜박이지 않았다



## 영천 거조암(居祖庵)

산을 쓸고 내려온 바람이 돌담의 코스모스를 흔든다. 노랗게 익은 감들이 햇살에 빛나고, 양지 바른 쪽의 단풍은 붉은 물이 울었다. 드문드문 드나들던 인적도 끊어진 마당에는 낙엽이 이리저리 구르고, 조용한 석탑 하나가 긴 그림자를 그리고 있다. 거조암이다.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가 시작됐던 곳이다.

거조암은 은해사의 산내 암자로 신라 효성왕 2년(738) 원참 스님이 창건했다. 13년 뒤에 해림(慧林) 스님과 법화 스님이 영산전을 짓고 오백나한(五百羅漢)을 모셨다. 영산전은 몇 안 되는 고려 시대 건물로 국보(제14호)다.

영산전이다. 은은한 불빛 속에서 오백나한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그 옛날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눈빛, 그 눈빛들 사이를 걸으면 부처님의 설법을 모으던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승선선존자의 눈빛을 본다. 너무도 또렷한 영혼과 시간. 부처님을 기억하는 영혼과 그 영혼이 간직한 아득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자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지켜왔던 부처님의 설법. 잊지 않고 전해준 그들의 눈빛 속에 그 날이 보인다.

오백나한 중엔 자신과 닮은 얼굴이 하나쯤 꼭 있다고 한다. 한 불자가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의 나한과 눈을 맞추며 절을 올린다. 자신과 닮은 얼굴을 만났을까.

다시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해는 기울어 서산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훑어보는 낙엽 위로 낙엽이 또 떨어진다. 가을이 깊어간다. 눈이라도 한 번 깜박거리야 '세월' 일 텐데 그들은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 세월인지 거조암 영산전에 가면 알 수 있다. 그토록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도 고단하다. 특히나 고단한 이 가을, 나한의 눈빛이라도 한 번 보고 올 일이다. 나와 닮은 나한을 만나서 그 날의 설법을 들어볼 일이며,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일이다. 그들은 아직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 나한(羅漢) - 아라한(阿羅漢)의 약칭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뒤 다섯 사람의 수행자에게 설법을 했다는 초전법륜(初轉法輪) 이후 다섯 사람이 모두 정각을 이루게 됨으로써 부처님을 포함한 여섯 아라한이 생겼다. 여래 10호 중 하나인 아라한의 의미는 존경할 가치가 있는 사람, 수행을 완성한 사람 등이다.

오백나한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오분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직후 왕사성에서 열린 제일 결집 때 500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결집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오백나한이란 부처님 당시 500의 제자나 부처님 열반 후 결집한 500의 나한과 비구 등을 칭하는데 두루 쓰이고 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책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禪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중 요가마음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시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읍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行孝 尊親 伏魔 靈駕

고급 밤나무 재질, 울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www.dya.xo.st